

5·18단체, 망언 규탄 상경 집회

광주 5월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가 23일 대거 상경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수논객 지만원 등을 규탄하고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첫 집회 이후 두 번째 대규모 범국민대회다.

지씨에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 184만 광수로 지목된 광희성씨는 이날 마이크를 잡고 "여기 전부 북한군이 모였냐는 우스갯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지씨는 광씨가 북한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춘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씨는 "1980년 당시 시민군으로 뛰었다. 그런데 나보고 권춘화라고 한다며 '나는 군대를 만기 제대했고, 둘 있는 이들도 전부 군대를 다녀 왔다. 그런데 내가 왜 북한군이냐. 북한군이 군 생활 열심히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진태 등 3인과 지만원이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하는 것 또한 5·18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됐기 때문 아니겠냐"며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석은 5·18 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오늘 범국민대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이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광주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향한 거대한 원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현재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피흘린 5·18 영령들의 거룩한 헌신에 힘입은 것"이라며 "(김진태 등 의원의) 망동·망언은 5·18 모독 수준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에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발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5·18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냐"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관용이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광주 시민이 느끼는 감정과 분노를 함께 하고 이같은 망언이 사라질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의 5월 및 시민사회 단체

광주 5월·시민사회 단체 대거 상경 집회 및 행진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 및 보수논객 지만원 규탄 보수단체와 행진 동선 겹쳐...육설·고성 오가

1500여명은 이날 앞서 전세버스 30여대를 동원해 서울로 향했다. 이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퇴출 또는 자진 사퇴 ▲5·18 왜곡·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역사 왜곡 민간 공동대응·강력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5·18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집회 후에는 광화문 북측 광장을

거쳐 남측 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늘이 시작"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5·18을 지키는 데 뜻을 모을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합치게 운동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美 휴스턴서 대형화물기 바다 추락 3명 실종

미국 마이애미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보잉 767 대형 제트화물기 한 대가 3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23일(현지시간) 인근 만으로 추락했다고 항공 당국이 이날 발표했다.

미 연방 항공청(FAA)의 린 런스포드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직 타고 있던 3명의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 관할 경찰인 캠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도 아직은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엔진 2기를 탑재한 보잉 화물기는 이날 마이애미를 떠나 휴스턴으로 오던 중 켈베스턴 베이와 멕시코 만의 바로 북쪽에 있는 트리니티 베이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추락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FAA는 이날 추락한 아틀라스 에어 소속의 351년 제트기는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 남동쪽 48km지점에서 레이더와 무선 교신이 모두 끊어져 FAA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런스포드는 말했다.

휴스턴의 KTRK-TV는 여러 척의 수색정을 파견해서 생존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해안경비대 헬리콥터 수색기가 생존자를 찾고 있는 듯 해면 위로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동영상도 방영했다.

베네수엘라 국경 구호품 반입 시민-軍 충돌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지원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인도주의 구호물품 반입일로 선언한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와 브라질 접경지역에서 군과 시민들간 충돌이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 타임스(NYT),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콜롬비아 접경지역인 베네수엘라 우레나에서는 구호물품을 반입하려는 야당인사들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군과 충돌했다.

베네수엘라 국경수비대는 우레나의 프란치스코 데 파와 산탄데르 국경 다리에서 구호물자 수송을 위한 트럭의 통행을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우려는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쏘아댔다.

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트럭과 버스, 모터사이클 등을 타고 우레나로 모여 건너편 콜롬비아 국경지역에 쌓여있는 280의 구호물품 반입을 위해 다리 위의 철제 차단막과 절조망 제거에 나섰다.

국경 바로 건너편에 있는 콜롬비아의 국경도시 쿠쿠타에는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 14대와 호송차가 몇 주 동안 대기하고 있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국경수비대와 군은 최루탄을 앞세워 국경으로 연결되는 3개의 다리에서 시민들을 저지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곳곳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과이도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베네수엘라 땅으로 진입했지만 마두로의 군대가 차량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베네수엘라의 남쪽 브라질 접경지역 쪽에서는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 일부가 베네수엘라로 들어왔다.

과이도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마두로 정부의 봉쇄를 뚫은 것이 콜롬비아 쪽에 있는 물품도 결국 베네수엘라로 전해질 것이라고 시민들을 독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을 동원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인도서 '독성 밀주'로 최대 100여명 사망

인도 북동부 아삼 주에서 발생한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아삼 주에서 독성 밀주를 마시고 80~100여명이 사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삼 주의 히만타 비스와 시르마 보건장관은 왓츠앱에 현재까지 사망자가 8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이외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르마 장관은 거의 2분마다 새로운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현재 2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와 환자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차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유통된 밀주는 골라가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여성과 그의 아들이 만들어 판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성이 있는 메틸 알코올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봄 소식 전하는 신수유 원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수유 꽃이 활짝 피어 시민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살인·횡령'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도박 중독

20~30대의 인터넷 도박중독이 비용 마련과 빚 변제를 위한 100여 원 대 횡령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목포경찰서는 22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3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귀금속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48·여)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발생한 한 채무 500만원에 대한 상환 폭족을 받게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여대생 행세를 하며 돈을 쟁긴 C(29)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00여원 대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N(주)의 한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D(27)씨가 구속기소됐다.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에 빠진 D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법인통장의 회사공금 117억315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를 찾은 상담자 중 76.4%가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44%가 불법

스포츠 도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김영근 예방홍보팀장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가 쉽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 집단은 중독성도 심각하다"며 "문제는 온라인 도박은 상한액이 없어 잃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며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범죄로 연결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도박비를 마련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 제재를 통해 접근을 원천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깅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